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일 개막

올해 달라지는 것들

# MP3로 현장에서 작품해설 듣는다

제2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1회 대회 때와 달리 관람객들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람서비스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행사 관계자들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음성자동 안내시스템(MP3)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관람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성자동 안내시스템(MP3)을 도입한 데 이어 홈페이지(www.design-biennale.org)를 통해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관람객들의 참여로 LED조명 작품을 만드는 참여형 행사도 도입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된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은 소형 MP3에 작가, 창작배경 등을 모두 수록, 도슨트(전시 해설자)들의 도움 없이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은 무료 제공된다.

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 100여대의 MP3 도입한 데 이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을 경우 순차적으로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시작과 함께 작품을 설명하는 패넌을 전시하는 것도 관람객을 위한 배려다. 관람객들은 전시작품의 디자인 개념, 작가 소개 등을 담고 있는 패넌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작품해설 패넌은 1회 행사에서 작품의 제목과 작가만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디자인 비엔날레 홈페이지에도 전시작별 작가, 작품해설을 수록한 음원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해 누구든지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띈다.

관객 참여형 작품도 선보인다. '디자인체험관'

##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 관람문화 업그레이드 체험행사 강화...어린이 제작 LED 조명 작품 첫선

에 설치된 대형 LED캔버스(2m×2m)는 관람객들이 감상과 소감을 적은 쪽지를 LED조명 끈으로 고정함으로써 형형색색의 빛을 발산하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특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공몰물 시루형' 단체관람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단체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부스와 부스를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관람토록 하는 등 개별 관람객과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디자인 스퀘어'와 '디자인 프라자'를 관람 전용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자인 스퀘어'와 '디자인 프라자'는 전시장 내에 설치된 대규모 원형 공간으로 전시장 내 모든 부스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이다.

이순인 디자인총감독은 "국제적인 행사라는 위상에 걸맞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디자인의 세계를 만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단 25주년 광주오페라단, 해외 유명 성악가·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 예향 울릴 오페라 '나비부인'

5~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외국 유명 성악가들이 등장하는 대형 오페라 공연은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지난해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오페라 '아이디'를 만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프로그램 중에 오페라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올 가을, 그 아쉬움을 달래줄 대작 오페라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는 광주오페라단(단장 임재철·호신대교수)이 베르디 콩쿠르 등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승한 외국 성악가들을 초청,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Madame Butterfly)'을 무대에 올린다. 5~8일까지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미군 해군장교와 게이샤의 사랑과 배신을 소재로 한 '나비부인'은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미스 사이공'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던 작품. '나비부인'은 또 지난 1973년 김자경오페라단에 의해 광주(아세아극장)에서 처음 공연됐던 오페라이기도 하다.

모두 3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번 '나비부인' 공연에는 해외 유명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주인공 나비부인 역에는 베르디 콩쿠르 우승자 베아트리체 그렛지 오텔 비룻, 라우리에 김슨, 신주련 씨가 캐스팅 됐으며 핑커톤 역은 베르디 콩쿠르와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마우리치오 살타린, '나비부인'만 70여회 공연한 페르난도 델 발레가 번갈아 맡는다.

포 스킨키역에는 쉬게코 이바라키와 전진씨가, 샬레스역에는 베를린오페라좌에서 활동하고 바리톤 베르트 바렌틴, 김남경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최재욱·송원석·박재욱·이환희·김진희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오케스트라(지휘 크란체프)의 수준높은 연주도 볼거리다. 소피아 오페라단 소속인 불가리아 오케스트라는 오페라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오

케스트라로 평평이 난 팀이다.

연출을 맡은 정갑근씨 역시 '나비부인'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인물. 순천교 출신으로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를 수료하고 라스칼라 극장에서 연출 연수를 받았던 정 씨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푸치니 페스티벌'에 초청돼 '나비부인'을 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다.

이확순씨가 맡은 무대장치치는 지난해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무대 그대로다.

'나비부인'의 매력은 화려하고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아기자기한 극적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허밍 코러스'는 '나비부인'의 백미. 또 주인공 나비부인이 언제까지나 핑커톤을 기다리겠다며 부르는 아리아 '어떤 개인 날' 역시 인기 있는 아리아다. 티켓 가격 1만~10만원. 문의 062-511-126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 '나비부인'에 출연한 외국 성악가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 '세계 한인의날' 학술대회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4일 '고려인 디아스포라'

제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구 중인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철 교수)은 "제1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을 맞아 4일 오후 1시30분 전남대 사회과학대 강의실 및 교수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강제이주 70주년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고려인 사회와 한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지리학연구소 폴리안 박사

가 '스탈린의 강제이주와 명예회복 조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김영웅 박사가 '고려인 강제이주 70년의 평가', 러시아 언론인 첼발렌진 이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언론에 나타난 고려인의 정체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고려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NGO 활동가들이 '고려인 재이주 문제와 정착'을 주제로 발표하며, 카자흐스탄 한국학센터 김병학 시인, 전남대 이승우 교수, 김홍길 박사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문의 062-530-270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전남문협, 진도서 청소년 문예제전

전남문협협회(회장 조수용)는 3일 진도군의신변 신비의 바닷길 공연장에서 '섬지역 청소년 문예제전'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에서는 당일 발표되는 주제에 따라 운문, 산문 두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백일장과 시낭송대회 대상에게는 진도교육청장이 수여된다. 문학강좌에 나서는 조수용(소설

가) 광주교대 교수는 '창조적인 생각'을, 김민규(수필가) 황산중학교 교감이 '좋은 책 60권 읽기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법과 독후감 쓰기'를, 김성백(아동문학가)의 동초등학교 교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 지도'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문의 062-363-995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흥행은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b>메가박스</b> 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행복 (1544) 최고급관 2관 스테이지 뷰티 (1844) 3관 내니 다이어리 (1244) 4관 본 얼티메이텀 (1244) 5관 사랑 (1544) 6관 아드레날린24 (1844) 7관 즐거운 인생 (전제) 8관 상사부일체 (1544)/인베이션 (1544) 9관 러시아워3 (1544)</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 합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이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b>엔터시네마</b> 총창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행복 (1544) 2관 인베이션 (1544)/두얼굴의 여친 (1544)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44) 4관 본 얼티메이텀 (1244) 5관 사랑 (1544) 6관 즐거운 인생 (전제)/ 화려한휴가 (1244) 7관 상사부일체 (1544)</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넓고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b>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b>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력회관뒷편)</p> <p>1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44) 2관 내니 다이어리 (1244) 3관 인베이션 (1544)/행복 (1544) 4관 행복 (1544) 5관 아드레날린24 (1844) 6관 사랑 (1544) 7관 두얼굴의 여친 (1544)/즐거운 인생 (전제) 8관 인베이션 (1544) 9관 상사부일체 (1544) 10관 러시아워3 (1544)</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할인혜택 (10%) *점심 상영중 성명권연봉 반입 (1만원 2번) → 1번</p>	<p><b>씨너스 전대</b>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사랑 (1544) 2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44) 3관 인베이션 (1544)/러시아워3 (1544) 4관 두얼굴의 여친 (1544) 5관 즐거운 인생 (전제) 6관 상사부일체 (1544)/행복 (1544) 7관 본 얼티메이텀 (1244)/내니 다이어리 (1244)</p> <p>*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로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독자 사무시(모바일-키넥트) ARS 전화예약 1544-0070</p>	<p><b>무등극장</b> 총창로 1가 ☎ 232-9106</p> <p>1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44) 2관 상사부일체 (1544) 3관 행복 (1544) 4관 내니 다이어리 (1244) 5관 사랑 (1544) 6관 아드레날린 (1844) 7관 인베이션 (1544) 8관 본 얼티메이텀 (1244) 9관 러시아워3 (1544)</p> <p>*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입장료 3천원 이하 관람객은 무료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b>제일시네마</b> 총창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p> <p>1관 행복 (1544) 2관 러시아워3 (1544) 3관 내니 다이어리 (1244) 4관 사랑 (1544) 5관 상사부일체 (1544)/인베이션 (1544) 6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44)/두얼굴의 여친 (1544)</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로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p>
---	--	--	---	---	---